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도약

승강기가 좋다 ^{7월}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6층(남영동, 우리빌딩)
전 화 | 02-798-9859 · FAX | 02-798-9819
홈페이지 | www.kola.or.kr

01 새정부 출범 1개월,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 1주년

새정부 출범 한 달, 승강기산업계는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월 2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승강기산업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어요.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와 협회, 공단,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채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라 올해 시행하는 정부 사업 경과에 대해 공유했어요. 안전 공유 이후에는 행안부가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공급망 불안, 기술개발 저조,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전했어요. 협회도 협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 의견이 제도개선과 정책제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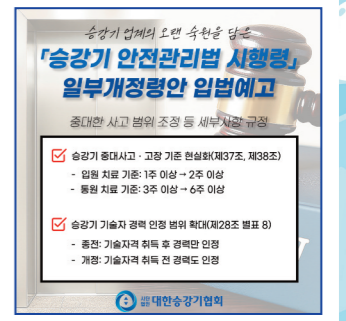
6월 25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조사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국내 첫 승강기산업 실태조사로, 승강기 제조·설치·유지관리·수출입 등 산업 전반의 구조와 경영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에요. 전국의 승강기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결과는 내년 초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에요. 행안부와 협회는 이번 조사가 산업 진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



02 중대한 사고 기준 완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협회는 행정안전부가 7월 16일에 입법예고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업계의 오랜 숙원이 일부 반영된 의미 있는 제도개선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이번 개정령안은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하게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는 기준을 일부 현실화하고, 승강기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기술자격 취득 전 실무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반영했어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장 부담 완화와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8월 18일까지 협회 정책발전팀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03 2025년 제2차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협의체 회의



지난 7월 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2차 승강기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해당 회의는 승강기 관련 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분기별 정례 회의로,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기존에 논의되었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경과를 공유했어요. 진행경과 공유 후에는 업계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며 향후 회의 방향을 설정했어요.



04 방화문 인정제 관련 행정예고 업계 의견 논의 회의



국도교통부 고시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방화문 인정제도와 관련해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월 16일 승강기용 방화문에 삼방틀 직접생산 의무화, 자연성능시험 추가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어요. 이에 따라 협회는 승강기문 제작 현황과 해외 사례 자료를 기반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어요. 회의 간 논의된 내용은 공식 의견서 양식에 맞춰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05 이색승강기: "산속에 이런 엘리베이터가? 불암산 전망용 승강기 탐험기"



서울 동북부 노원구와 중계동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불암산,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등산객과 동네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인데요. 그런데, 불암산 한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방문했어요. 불암산 힐링타운 끝자락, 산책로 끝에 비밀기지처럼 우뚝 서 있는 불암산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예술적 공간 그 자체예요. 시각적인 요소에서 주는 감수성도 있지만 '산'이라는 곳이 교통약자에게는 꿈과 같은 장소인데 보행이 불편한 이들에게 포용한 전망대는 배리어프리를 적극 실현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기능성과 디자인을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다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면 올라가는 동안 주변 경관이 눈에 들어오는데 꼭 동화책 책과 콩나물의 책이 된 것마냥 하늘나라로 향하는 느낌을 선사해주요. 마침내 약 10m 높이의 전망대로 도달하면 360도 파노라마뷰로 서울의 북부 산세와 도심이 한눈에 들어와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부터 용산에 있는 남산까지 상쾌한 느낌을 선사해요. 자연 속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주는 불암산 전망용 엘리베이터 독자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길 바래요.

